

아히라쓰 신사

일본 신화에 따르면 아히라쓰히메는 전설 속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의 첫 비입니다. 진무 천황은 일본 전역을 정복하고자 길을 떠나며 적대시하던 부족을 쓰러뜨리면서 지금의 나라현에 해당하는 일본 중앙에 국가를 건설하여 목적을 달성하였는데, 길을 나서기 전 진무 천황과 아히라쓰히메는 함께 생활하며 슬하에 자녀도 두었습니다. 이후 아히라쓰히메는 진무 천황과 함께 길을 나섰다는 설도 있지만, 남편의 성공을 빌고자 홀로 남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부라쓰의 주요 신사였던 아히라쓰 신사(옛날에는 ‘오토히메다이묘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림)는 아히라쓰히메를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본래는 여러 민화에 등장하는 바다의 여신 ‘오토히메’를 모시는 신사로, 1868 년의 메이지 유신 이후, 아히라쓰히메의 이름을 본떠 아히라쓰 신사로 이름을 변경한 이곳은 지금도 참배길에 오토히메의 동료였던 원숭이와 꿩의 석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메이지 천황(1852-1912)이 중심이 된 정부는 신도(神道)를 국교로 제도화하면서 토착 신화와 황실 기원 설화에 관한 장소를 숭배하고 유지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아부라쓰의 주민들이 진무 천황의 비를 주요 제신으로 모시는 것은 뜻깊은 일이었습니다.